



제목	Honored by the Glory of Islam: Conversion and Conquest in Ottoman Europ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8. 1. 2.
저자	Marc David Baer
출판도시	Oxford
페이지수	332
ISBN 또는 ISSN	978-0195331752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 개종에 관한 연구서로서 오스만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4세 시대를 다루고 있다. 메흐메드 4세의 통치 당시에는 메디나 공동체의 생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극단적 이슬람 정통주의자들인 카드자텔리(Kadizadeli) 운동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술탄의 어머니와 오스만 왕실의 측근들과 메흐메드 4세가 그 논리에 동조하여 제국 내 소수종교집단과 외국의 비무슬림들에게 개종을 강요했다고 한다. 저자는 개종시키는 사람의 관점에서 즉, 메흐메드 4세의 입장에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조명한다. 저자에 의하면 메흐메드 4세는 자기 자신을 '가지(ghazi, 비무슬림을 쳐부수는 성전사)'로 인식했는데, 메흐메드 4세가 그러한 인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신을 가지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 책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종교 내의 개종이 자연스런 대응일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개종을 “자기 개종 (conversion of self)”이라고 부른다. 3장은 카드자텔리 운동의 역사를 개관한다. 4장은 1660년 이스탄불 대화재 이후 비무슬림의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다룬다. 5장은 카드자텔리 운동의 설교자 와니 메흐메드 에펜디(Vani Mehmed Efendi)가 술탄 메흐메드 4세에게 종교적 도덕주의를 채택하도록 설득한 방식을 고찰한다. 6장에서 저자는 술탄이 새로운 유대교 메시아운동을 억압했으며 비무슬림 유대인 왕실 의사에게 개종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7장~11장에서 저자는 오스만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카드자텔리 운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종교 내 개종 및 종교 간 개종과, 동유럽 및 중부 유럽에 대한 제국의 군사원정 정책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